지난 3일 강화도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이 출발하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 성화 경북에서 봉송 출발

776명 주자들에 의해… 점화는 8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출발식이 4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다.

성화봉송 출발식은 안전한 성화 봉송을 기원하는 구미 무을농악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전달, 성화 합화, 최초 주자들의 성화 봉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봉송되는 성화는 개천절에 강화 마니산 참성단(전국체전)과 구미 금오산(장애인체전)에서 각각 채화된 불꽃으로 체전 개최지역을 돌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청을 출발한 성화는 강화 구간을 포함해 102개 구간, 1013km, 776명의 주자들에 의해 봉송되며 전국체전은 오는 8일에, 장애인 체전은 20일에 구민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102구간은 제102회 전국체전을, 1013km는 경북 10개 시와 13개 군 경북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도청에서 첫 번째 구간을 봉송한 최초 주자는 2021년 경북도와 구미시에 신규 임용된 MZ세대 공무원으로 선정해, 한국 체육 새로운 100년의 출발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성화봉송에는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다짐하는 대구·경북 특별봉송과 시군별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은 경주의 신라왕 행차 재현, 상주의 자전거 봉송, 울진의 요트 봉송 등 다양한 이색행사도 열린다.

경북도는 1년의 순연과 코로나 재확산 등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출발하는 성화가 안전하게 봉송될 수 있도록 전 주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봉송지역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회장을 환히 밝히고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안전한 성화봉송과 위드 코로나의 시금석이 되는 안전체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도내 초등 태권도선수단, 소년체전서 '금빛 발차기'

男초등부 전주남초 정혁 · 반월초 박지성, 女초등부 군산미장초 이하늘 · 무주설천초 엄다은 등 4개 획득

도내 초등학교 태권도선수단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2021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1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2021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1차'에 도내 초등부 9개팀(전주초, 전주남초, 전주조촌초, 함열초, 정읍서초, 삼례초, 설천초, 안성초) 48명의 선수가 참가해 대회 첫날 금 4개(남자초등부 2개: 전주남초 정 혁 선수, 전주반월초 박지성 선수, 여자초등부 2개: 군산미장초 이하늘 선수, 무주설천초 엄다은 선수), 은 2개(전주조촌초 오찬우 선수, 삼례초 김준범 선수), 동 2개(정읍서초 김다애 선수, 삼례초 이섬결 선수)를 획득했다.

대회 둘째날 남자초등부 라이트헤비급에서 정읍한솔초 김다온 선수와 무주설천초 신한희 선수가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전라북도 태권도선수단은 태권도 초등부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29일에는 참가선수 중 코로나 확진선수가 발생해 중등부 경기는 8강까지만 진행되고 중단된 상태다.

한편 코로나로 각종 대회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우려가 있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문스포츠클럽 전환과 육성종목 강화훈련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 참가비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육성종목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 근대 축구 의미 재조명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오토바이 채금석' 기획전시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시 현장 담은 사진 등 선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오토바이 채금석' 展을 개최한다.

채금석은 일제강점기 축구선수로 지난 1933년 제2회 경평(서울~평양) 축구대회 때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수로 맹활약한 이후 '군산의 오토바이 채금석'이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날렸다.

한평생 축구공과 함께 달리며 축구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후진양성에 힘쓰며 한국 축구발전을 위해 밑거름을 자처한 진정한 축구인이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축구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채금석의 삶과 근대 축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당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과 유물을 그의 고향인 군산에서 전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시는 총 6부로 구성된다. 1부 '아침의 나라에 찾아온 풋뽈'은 구한말 도입된 축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2부 '거대한 감옥 속 작은 희망'은 일제의 탄압을 축구를 통해 극복하려는 모습을, 3부 '군산에 분 축구 열풍'은 군산지역 축구의 발전과정과 채금석의 유년기를, 4부 '빼앗긴 운동장에 찾아온 봄'은 채금석의 청년기의 모습을 사진과 신문자료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5부 '축구 영웅의 귀환'은 고향으로 돌아온 채금석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유물과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주며, 6부 '제2의 채금석을 찾아라'는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우리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킨 축구와 역경의 중심에서 활동한 채금석의 희생적인 삶을 상상해보며 그때 그 함성과 열기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이 근대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전국 산악회 리더 대상 '마운틴 인증제' 시범 운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마운틴 리더 인증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마운틴 리더 인증제'는 전국 산악회 리더 등을 대상으로, 리더로서 산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해 검증 후 인증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10~11월중 개설하고, 이어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인증 테스트를 시행한다.

특강은 10월 5~10일 백기영 강사의 1회차 교육에 이어, 10월 10~31일 박승기 강사의 2회차, 10월 23일~11월 14일 남정권 강사의 3회차 교육으로 이어간다.

각 강사별로 특강은 총 5회씩 진행하며, 독도법 초·중급과 상급, 등산앱 사용법 초·중급과 상급, 비상상황 대처법 등 5개 과목을 각 1회씩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 교육과정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국 교장은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등산 중 사망 사고 120건, 부상 6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사고의 태반이 리더의 등산 지식과 실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들 리더의 산행 능력을 높여 등산 중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운틴리더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등산학교는 인증 테스트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말 예정인 시범 인증테스트는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리더의 자질을 인증받고 싶은 등산동호인이라면 누구나 도전가능하다. /유호상 기자